

補助詞(존경) {요}에 對하여

金 正 市

〈차 례〉

I. 서 론

II. {요}의 동시적 고찰

III. {요}의 통시적 비판

IV. {요}의 통시적 이행태들

V. 결 어

I. 서 론

박승빈님의 종지보조사(終止補助詞) 설정 이래 {요}에 대한 논의는 단편적으로 부단히 개선되어 왔었다.

박승빈님의 견해로는 {요}를 종결어미 범주의 한 형태로 다루고 있으나¹⁾ 최현배, 이은정에서는 ‘감탄조사’로 강운호, 정인승, 남기심에서는 보조사 중 ‘종지보조사’로 강복수, 유창균에서는 보조사(존경)로, 이희승, 이승녕, 김민수, 양주동, 이을환, 이명권, 성기철에서는 ‘특수조사’로 보는가 하면 허웅, 고영근에서는 ‘문장 끝에만 붙는 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홍기문에서는 어미의 개념으로 쓰인 ‘종결사’로 규정하고 있고 이길록에서는 복합어미로 보고 있으며, 이익섭에서도 ‘해요’체 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이들 논의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서론의 각 논의는 참고문헌의 서적을 상고할 것.

제 1류 : 감탄조사

제 2류 : 종지보조사

제 3류 : 보조사(존경)

제 4류 : 특수조사

제 5류 : 문장끝에만 붙는 조사

제 6류 : 어미

이처럼 '요'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사가 되어야 하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 문법서가 없고, 대개가 문장 끝에 붙는 '요, 마는, 그러, (그래)'를 한꺼번에 종지보조사의 성격으로 취급하고 있다. 대우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성기철(1979)에서도 {요}와 여타의 종지보조사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결국 종지보조사로 귀착시켜 구체적 논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 후 공식적으로 {요}가 실현되는 위치를 살펴 그 문법범주를 살피고, 아울러 통시적으로 {요}의 발생과정을 더듬어 {요}의 이형태들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Ⅱ. {요}의 공식적 고찰

1. {요}가 쓰이는 자리

(1) 문장 끝에 쓰임

{요}가 쓰이는 영역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현대국어의 높임의 등급을²⁾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의 6분법으로 보고 각 등급에서 {요}결합형태를 고찰하면 다

2) 성기철(1970:51)

음과 같다.

- 1) ㄱ) 어르신, 다녀왔습니다요. (평서)
- ㄴ) 이 물건이 훨씬 좋습니다요. (평서)
- ㄷ) *예수님 이름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디요. (평서)
- ㄹ) 안녕하십니까요? 무엇을 찾으십니까요? (의문)
- ㅁ) *어찌 바라겠나이까요? (의문)
- ㅂ) *어서 오십시오요. (명령)
- ㅅ) *주여, 저희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요. (명령)
- ㅇ) 우리 같이 가십시오요. (청유)

하십시오체의 종결어미 다음에 붙는 {요}는 다분히 개인적이고도 자의적이다. 이 형태를³⁾ 사회방언학적인 특성으로 보고 합쇼체(하십시오체)보다 더 높은 등급의 말씨가 아니고 상업적인 (또는 만담투)의 느낌을 주는 것이며,⁴⁾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경의에서 쓰인 것이다.

(ㄷ), (ㅁ), (ㅅ)이 비문이 되는 것은 {-나이까}, {-나이디} {-소서} 등의 형태소들은 {요}가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된⁵⁾ 1930년대 이전에 구어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거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와의 결합의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ㅂ)이 비문이 되는 것과 같은 예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2) ㄱ) *그들은 어제 서울에 갔소요. (평서)
- ㄴ) *내 마음이 매우 흡족하오요. (평서)

3) 이익섭(1974:58)

4) 마스오 이사부(1977:75)

5) 고영근(1974:83), 마쓰오 이사부(1977:76)

- ㄷ) *지금 가시오요? (의문)
 ㄹ) *언제 갔소요? (의문)
 ㅁ) *빨리가소요. (명령)

하오체 종결어미는 {-오}, {-소}로 끝나고 있는데 이들 형태소 다음에 {요}가 결합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오}, {-소} 자체가 하오체라는 고정된 높임의 등급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높임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 ㄱ) 이번에는 내가 감새요. (평서)
 ㄴ) *자네 이제 가는가요? (의문)
 ㄷ) *자네 이제 늦었으니 그만 가세요. (명령)
 ㄹ) *당신 해소기침약이나 사다 자시도록하시구료(려)요. (명령)
 ㅁ) *나하고 같이 가세요. - ('가세요'의 이형태인 '가세요'와는 구분됨) (청유)

예사낮춤의 하계체의 종결어미에 {요}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요}가 내포하고 있는 형태소적 특질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는 청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져 있는 예사낮춤 등급에 {요}가 결합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 4) ㄱ) *산이 참 아름답다요. (평서)
 ㄴ) *나는 집에 간다요. (평서)
 ㄷ) *너 어디 가느냐요? (의문)
 ㄹ) *내가 어찌 그곳에 가랴요? (의문)
 ㅁ) *이리 앉아라요. (명령)
 ㅂ) *네가 가거라요. (명령)

- ㅅ) *어서 오나라요. (명령)
 ㅇ) *우리 같이가자요. (청유)
 ㅈ) *이제 가는구나요. (감탄)

해라체와 고정된 등급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뒤에 {요}는 결합되지 못한다. 1930년 이전에 확립되어 있었던⁶⁾ 4차원 체계가 후기 현대국어에 들어와 전기시대⁷⁾ 아이들이나 결혼적령기의 처녀들에게 쓰였던 {요}가 그 쓰임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예사높임의 하오체와 예사낮춤의 하계체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오늘날의 국어에는 {요}가 반말에 결합하여⁸⁾ 두루높임에 쓰이고 반말이 두루낮춤에 생산적으로 사용되어 높임의 등급이 높임과 낮춤(안높임)으로의 2등급으로⁹⁾ 수렴해 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되자 해라체에 고정되어 있던 종결어미들은 그 낮춤의 고정성을 공고히 하여 체제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의 결합을 거부하게 이른 것이다.

- 5)¹⁰⁾ ㄱ) 선생님 배가 아파요. (평서)
 ㄴ) 이것은 제가 먹지요. (평서)
 ㄷ) 오늘은 제가 집에 있을게요. (평서)
 ㄹ) 일단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좋다고요. (평서)
 ㅁ) 사실은 그런게 아니래요. (평서)

6) 고영근(1974: 66)

7) 고영근(1974: 83)

8) 성기철(1970, 1979 현대국어문법: 계명대학 출판부)

9) 고영근(1974: 80)에서는 2차원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4차원은 인정해야 하며 2차원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5)의 예문은 대체로 고영근(1974: 85)의 반말체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예를 든 것임.

- ㅂ) 언제 오셨어요? (의문)
 ㅅ) 날씨가 매우 춥지요? (의문)
 ㅇ) 학교는 언제 방학하나요? (의문)
 ㅈ)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문)
 ㅊ) 오늘 떠나시게요? (의문)
 ㅋ) 벌써 가시다니요? 이게 천원이라니요? (의문)
 ㅌ) 아침 잡수시어요.(-셔요) (명령) 이걸 꼭 잡아요. (명령)
 ㅍ) 여기 앉으시지요. (명령) 이리로 앉지요. (명령)
 ㅎ) 어서 가시라고요. (명령) 빨리 피하라고요. (명령)
 ㄱ') 저하고 같이 가세요. (청유) 우리 같이 가요. (청유)
 ㄴ') 저하고 같이 앉으시지요. (청유) 우리 같이 앉지요. (청유)
 ㄷ') 저하구 같이 가지자구요. (청유) 같이 가자구요. (청유)
 ㄹ') 비가 오는군요. (감탄)
 ㅁ') 비가 오는 구먼요. (감탄)
 ㅂ') 꽃이 참 곱네요. (감탄)
 ㅅ') 날이 청명하게 개었는걸요. (감탄)
 ㅇ') 맛이 참 좋은데요. (감탄)
 ㅈ') 그 집은 참 좋을쇠요. (감탄)

현대 전기국어에서 아이들이나 성년 여자들 사이에 사용되었던 {요}가 현대 후기국어에서는 그 세력을 확산하여 모든 종결어미 형태의 반말에 결합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존비법이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족, 계급, 사회적 지위, 연령, 주종, 상하관계에 있어서 각 계층의 차이를 표현하면서 높이거나 낮춤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것이 현대 후기국어에 들어오면서 사회계층의 붕괴와 핵가족제도에 의한 가부장제도의 동요 등 사회언어학적 변화로 인해 보다¹¹⁾ 비격식적이고 친밀감을 주는 {요} 형태를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복잡한 언어생

11) 이익섭(1974:60)

활에서 간편한 언어생활로 수행하고자 하는 언중의 의도는 고래로부터 있어 온 문법지향의식이다. 이 의식이 은연중에 {요}에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두루낮춤의 반말이 하계체에도 사용되어 해체보다는 높임의 의미를 약간은 지니고 있는 곳에 {요}를 결합시켜 ‘십시오’체와 ‘하오’체에 두루 씌으로써 문법의 간이화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젊은 층 화자에 매력적으로 접근하여 그 세력이 더욱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된 문장 끝에 붙는 {요}의 쓰이는 자리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장 끝의 {요}결합 여부

구분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반 말	비고
평서형	-ㅂ니다 -나이다	O -소 X -오	X -ㅁ세 X	X -다 X -ㄴ다 X -마	X -아, -지 X -ㄹ께, -래 X -다(라)구	O ‘O’는 결합 가능처
의문형	-ㅂ니까 -나이까	O -소 X -오	X -ㄴ가 X	X -느냐 X -랴	X -아, -지 X -나, -ㄹ까 X -게, -다(라)니	O ‘X’는 불가능처
명령형	-ㅂ시오 -소서	X -소 X	X -게 X -거라	X -라 X -거라	X -어, -지 X -다(라)구	O
청유형	-ㅂ시다	O		X -세 X -자	X -어, -지	O
감탄형					X -ㄴ구나 X -군, -구먼 X -네, -ㄴ걸 X -데, -ㄹ쇠	O

(2) 문장 끝 이외에서 쓰임

- 6) ㄱ) 우리가요 지난 주에 해수욕을 갔었는데요……
 ㄴ) 지영이가요 어제요 우리 집에요 놀러왔어요.
 ㄷ) 빨리요, 빨리빨리!
 ㄹ) 어디가니? 바다요.
 ㅁ) 그렇지만요 우리는 안할겁니다.
 ㅂ) 잠깐만요(복잡한 곳에서 지나가면서 양해를 구하는 말)

(ㄱ)은 문장 끝 이외에 {요}가 조사에도 결합되고 있음을 보이고 (ㄴ), (ㄷ)에서는 부사와의 결합도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ㄱ)은 은밀한 만큼의 친근한 사이에 쓰이고 (ㄴ)은 어린이들이 그 보호자들에게 친근감과 존경의 뜻을 아울러 어리광으로 쓰이는 말이다. 경어법은 화자, 청자와 화제의 행동주 간의 상하, 존비, 친소 등의 대립에서 오는 신분성표시(expression of social relationship)를 가리키는 말인데¹²⁾ 경어구사의 심리는 다음 6가지로 보고 있다.

- | | |
|----------------|------------------------|
| (一) 상대방 존중의 심리 | (二)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의 심리 |
| (三) 공식적 의례적 심리 | (四) 위엄, 품위, 경멸, 반어적 심리 |
| (五) 친애의 심리 | (六) 상업주의적 심리 |

{요}의 사용심리는 대체로 (一)과 (五) 또는 (六)항에 관계 깊으며 존경과 친근의 의미를 지닌 형태소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호격조사에 {요}가 결합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호격조사 자체에 이미 높임과 낮춤이 있어 {요}의 결합형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이인섭(1972: 15)

2. 현대국어에서 {요}의 문법적 위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는 문장 끝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문장성분에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의미는¹³⁾ [+ Respect, - Formal]의 비격식적 존대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격식적 존대에 비해 친근감을 준다. {요}의 결합으로 인해 문장성분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으며, 통사적 호응관계에 있어서 소위 압존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와 같은 {요}의 문법적 역할을 두고 볼 때 {요}는 단순한 화자의 주관적 느낌만을 표출하는 감탄조사가 아니며 문장 끝에만 나타나는 종지조사 혹은 문장 끝에만 붙는 조사가 아니며 어미는 더더구나 아니다. {요}는 대부분의 문장성분에 두루 쓰이고 앞말에 존경과 친근감의 의미를 부여하는 보조사(존경)로 보아야 마땅하다.

Ⅲ. {요}의 통시적 고찰

15세기 국어의 의문형 종결어미의¹⁴⁾ 형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단순화할 때 2인칭과 반말을 제외하면 [+의문사]에는 {-은고, -을고, -니오(-뇨), -리오(-료), -잇고, -닛고}와 [-의문사]에는 {-은가, -을가, -으니아(-녀), 으리(-려), -여-잇가, -닛가}로 구분된다. 여기서 형태론적으로 더욱 세분하면 결국 이들 계열은 {-오, -고}와 {-아, -가}가 남는데 그 기본 형태는 {-고} {-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계열화를 중시하려는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들의 기본음소인 /오,

13) 서정수(1984:114)

14) 김정시(1983:61)

〈표 2〉 15세기 의문형 종결어미

	하 라 체			하아씨체	하 쇼 서 체		반 말
	인 칭	[+의문사]	[-의문사]		[+의문사]	[-의문사]	
의문 법	2인칭	-은다	-은다	-넋가	-잇고	-잇가	-으니 -으리
	의문법	-을다	-을다	-넋고			
	1,3인칭	-은고	-은가				
	의문법	-을고	-을가				
비인 칭	비인칭	-니오	-으니아				
	의문법	(-뇨)	-으리아				
		-니오	(-여)				
		(-료)	(-녀)				
			(-려)				

아/에 중점을 두고 이들 의문형의 형태를 {-오}계와 {-아}계로 나누고자 한다. 15세기 당대에는 {-오} {-아}는 낮춤의 하라체 종결어미이다. 그 외의 높임의 등급은 이들 형태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오} {-아}의 역할은 아니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하라체와 하쇼서체의 중간에 하소체가 등장하면서 {-오}계열은 높임의 등급에서 갈등을 격게 된다. 그것은 15세기에 생산적으로 등장한 {-으니오} {-으리오}가 위축되고 하라체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종결어미가 [+의문사]에 {-으뇨} {-으료}, [-의문사]에 {-으냐, -으녀, -으려, -으랴}로 대체되고 있으면서 {-오}가 하라체와 하소체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 수 있다. 16세기의 하소체에는 {-소, -조, -쇼, -오}가 있어 그 분포 양상이 다양하나 {-소}가 월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7) ㄱ) 당녕이 밥 먹여 보내소(순천:1)¹⁵⁾

15) <청주 북일면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 조건상(1981) 충북대학교

ㄴ) 큰 형님 몬져 혼잔 자소(번노, 상:63)¹⁶⁾

ㄷ) 큰 형님 몬져 레 받조(번노, 상:63)

ㄹ) 내 제예 님논 관터 아니 와시니 급급히 보내오. 얼혀니 마오. 부러
사롬 브리터 스월 초다엿쇄 전으로 보내오. 밤바 이만(친필5)¹⁷⁾

여기서 ㄹ)은 李 滄이 1573년 3월 12일에 그 부인에게 보낸 서신인 데 {-오}가 하소체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의 생산적이고 활발한 사용으로 인한 {-오}계열의 어미에 존대의 뜻이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오}계열은 여전히 ㅎ라체에 사용되면서 ㅎ소체에 더욱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ㅎ라체에만 사용되던 의문형 {-뇨}, {-고}가 [+의문사]계열의 ㅎ소체에 쓰이는가 하면 {-ㄴ가}, {-ㄹ가}가 [-의문사]에 쓰여서 16세기의 그 체계에 있어서의 공백을 메워가고 있다.

8) ㄱ) 조 軍官도 보내시더너 왓습던가(첩해一:24)

ㄴ) 우리도 이런 일을 어이 조세 아올고(첩해二:10)

ㄷ) 정니에 어늬만 박히 너기 시거뇨(친필:32)

ㄹ) 프스일이옵 관터 이대도록 어렵사리 니라옵시느고(첩해五:21)

ㅁ) 臨風詠月호터 興이 전혀 업논 게오(선상탄)¹⁸⁾

ㅂ) 極爲不美한 줄은 니 엇지 모르리오(위군위친 통곡가)

ㅅ) 東州는 어더메요 보개산 뵈노매라(북관곡)

ㅇ) 슈양산 어더미요 고죽국이 여기로다(서경별곡)

ㅈ) 언제면 청춘으로 벗줄스마 도히 도라가리요(서경별곡)

9) ㄱ) 雉子는 侯門이요 새술은 니거 있다(수남방응가)

16) <번역 노걸대>(1510)년대

17) <친필 연간 총람>(1974: 김일근 편주) 경인문화사

18) 이상보 (1987) <17세기 가사집전>

- ㄴ) 富貴도 念밧기요 공명도 念밧기라(모하당 출회가)
 ㄷ) 甚愛 親子요 아비죽던 아즈비도(분산회복사은가)

8) (ㄱ)~(ㄷ)은 대화 당사자로 보아 호소체에 속한다. 이들 {-ㄴ가}, {-ㄷ고}, {-노}, {-ㄴ고}등은 그 앞에 청자존대의 선어말어미 {-습, 오, 시, 읊-} 등이 붙어 실현된다. 8) (ㄱ) 이하는 17세기 가사들이다. 8) (ㄱ), (ㄷ) 의문종결어미가 {-오}이고, (ㄷ)~(ㄷ)은 (-요)로 끝나고 있다. 그러나 (-요)가 등장하였다고 하나 아직 [+Respect, -Formal]의 의미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문맥 자체가 가사이고 그 성격이 inner speech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뜻 변별되지 않으나 {요}형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17세기에 들어와서부터임을 알 수 있다.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는 순행동화가 빈번히 일어남을 볼 수 있다.

- 10) (ㄱ) 피여(석9:8) 들여(석13:6) 서리여(월석7:20)
 든외여(월곡, 상. 기 143) 띠여(석9:8)
 (ㄴ) 서리예(용:4) 든리예(용:87) 머리에(월석2:64)

이와 같은 y순행동화가 /i/음 아래의 모음에 무리없이 순행되는데 15세기 국어에서 17세기 국어에 이르도록 {-이오}는 y순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오}의 본체가 {-이고}로써 /i/음 아래 ‘ㄱ’이 묵음화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본다. ‘ㄱ’이 묵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 동안 {-오}와 {-고}가 병행하면서 {-오}를 언어에 실현시키면서도 {-고}가 본체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y순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가 17세기에 와서야 {-고}의 ‘ㄱ’묵음화 의식이 불식되어 {-오}가 단독적 어미로 의식되면서 y순행동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오}의

축약형인 {-요}가 17세기에 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18세기에 발간된 것으로 연대가 분명한 서적은 윤음류 26종과, 오륜 전비언해(1758), 박통사신석언해(1765), 명의록언해(1776), 중간첩해신어(1781), 경신록언해(1796)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서적에서는 근대 국어의 다른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요}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크게 발달한 소설에는 {요}가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ㄱ) 네 이팔이 십육이 늑의 술 십육과 정동갑이라 엇지 반갑지 아니하
리요(원본춘향전: 3b)
- ㄴ) 춘향어미 늑와본즉 칙방도련님이어늘 가장 놀라는 채호며 이른 말
이 이어인일이요(원본춘향전: 5b)
- ㄷ) 아모리 주야 상직흔들 그림자도 업는 도적을 잡으리요(숙영낭자전
: 7b)¹⁹⁾
- ㄹ) 이런 답답흔 일이 어디 잇스리요(숙영낭자전: 10b)

이들 대본들은 국립도서관 소장본으로 각 이본들 중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¹⁹⁾ 춘향전도 열녀춘향수절가에 비해 구성이 단순하고 표현 내용이 조잡하며, 목판본 필체가 숙영낭자전과 거의 같아 이 두 작품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ㄴ)은 춘향어미가 이도령에게 이른 말인데 여기서 {요}는 높임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기생이 양반의 자제에게 헨라체를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언해된 문전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적다. 태상감응원도설언해(전5권: 1852), 관성제군명성경언해(1855), 남궁계적(1876), 삼성훈경(1880), 과화존신(1880), 충군영적지(1881), 관성제군

19) 숙영낭자전은 조선조 숙종에서 정조 사이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 (1986, 한국학연구원)〈원본 국어국문학 총림〉p. 570)

오륜경(1884), 잠상집요(1886), 중남포 목포 각국조계장정(1897) 등이 국가에서 발간한 것이고, 여소학(1882), 성경직희(1892~97) 등은 사적으로 간행된 문적들이다. 여소학은 충남방언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어 {요}의 쓰임이 보이나 여타의 문적에서는 {요}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재효에 의해 완성을 본 판소리에서는 {요}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2) ㄱ) 아버지 출지 안소. 아버지 시장하시지요(심청전. 상. 12a)
- ㄴ) 여보시오 어느 쇠아들놈이 부체님께 적어 노코 빈말 하것소 눈 쫓나다가 안진뵈이 되게요(심청전. 상. 18b)
- ㄷ) 아버지 내가 과연 인당수의 썩겨 죽어던 심청이요(심청전. 하. 34a)
- ㄹ) 소령들 현신이요. 이방이요. 수배요……우후 동산에 ……명월이. 나요(춘향전, 신관사도 변학도조)
- ㅁ) 서방임 너 말삼드리시오(춘향전, 폐의 파관조)
- ㅂ) 이는 혼음이 업는 사람이니 어디든 쓰리요(여소학五:43a)

이 시기에 와서 {요}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등에 두루 나타나고 ‘-지요’, ‘-게요’ 등 {-리}, {-이} 이외에 반말에 {요}가 결합되어 쓰이기 시작한다.

19세기에 {요}가 현재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기틀이 확립되었다 하겠다. 20세기 초 신소설 등에서 나타는 {요}는 합쇼체와 하오체 사이에 또는 하오체와 같은 등급으로 사용되다가 급격한 사회적 변동으로 신분상 변화가 일어나면서, 까다로운 존비의 등급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교제상 큰 실수를 범하게 됨을 피하기 위해 반말을 확장하여 엄격한 존비의 등급을 모호하게 하는 추이에²⁰⁾ 따라 19세기에 이미 반말

20) 최현배(1937:312)

과 결합 형태를 이룰 수 있는 문법적 기반을 마련한 {요}가 자연스럽게 결부되어 1930년대 이후에 두루높임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다.

IV. {요}의 이형태들

우리는 앞에서 {요}의 출발점을 15세기 의문형 종결어미 {-오}에서 찾아 보았다. 그리고 {-오}에 대응하는 의문형 종결어미 {-아}가 존재했던 것도 검토하였다. 그런데 {-오}, {-아}는 중모음 아래 있기 때문에 음모음하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²¹⁾ 이들은 음모음으로 된 이형태 {-우}, {-어}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료}:{-류}, {-냐}:{-녀}, {-뇨}:{-뉴}, {-랴}:{-려}, {-고}:{-구}, {-여}:{-야}의 이형태의 대립도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 13) ㄱ) 그에 精舍 ㅅ 업거니 어드러 가료(석보 6:12)
- ㄴ) 너 아녀 다투 = 非汝而誰러오 (능엄 2:30)
- ㄷ) 馬祖 ㅅ 히물 得호니야=得馬祖力耶(몽산:31)
- ㄹ) 네 數를 알리로 소니여 모튼니로소니여(석보11:4)
- ㄴ) 므스므라 오시니잇고(석보 6:3)
- ㅁ) ㄴ문 누구=他는 是阿誰오(몽산:20)
- ㅅ) 母氏로 勞苦케 호느냐(시경2:11)
- ㅇ) 므를 풀오져 호느녀(번노, 상:69)
- ㅈ) 아니 도호라(친필:15)
- ㅊ) 독버리 너를 브리려(번노, 상:45)

{-냐}, {-랴}는 15세기에는 용례를 찾지 못했다가 16세기에는 그 쓰임

21) 오종갑(1988:237)

이 종래에 있어 왔던 {-녀}, {-려}에 대응하리 만큼 분포가 넓다. 이렇게 하여 16세기에 이르러 2인칭과 반말을 제외한 의문종결어미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으쇼셔} : {-으슈셔}, {-으쇼셔} : {-으슈셔}가 공존하고 있었으며,²²⁾ 이 시기에 정립된 {요}도 그 이형태 {유}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 ㄱ) 나 좀 붓시요~이(전남 벌교:〈태백산맥〉)

ㄴ) 나 좀 봐 유(충청 천안)

ㄷ) 안그래여(경북 상주)

ㄹ) 어디예, 아이라예(대구)

엄밀한 의미에서 {요}의 이형태는 {유}만을 잡아야 할 것이다. {여}는 현재 낮춤에 두루 사용되는 형태인데 이는 17세기에 {-오}계열이 호소체로 이행되는 반면에 {-아}계열은 호라체에 머물러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경북 상주지방의 두루높임의 형태는 {요}가 결합되는 형태이다. 대구지방의 {예}는 전대에 이루어져 있는 {여}에 청자존재를 표현하는 {-이-}가 상향축약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라도 방면에서도 공식적이고 위압적 입장에서는 ‘붓시요’로 쓰인다. {요} 다음의 {이}는 은근함과 친근감을 표시하는 접미사로 볼 수 있겠다.

V. 결 론

1930년 이후 현대 국어에서 형태소 {요}는 반말과 두루 결합하여 두루 높임에 사용되면서 호격조사 이외의 모든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부사와의 결합도 부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장 끝에 나타

22) 이경영(1992: 79)

는 종지보조사일 수는 없고 보조사(존경)의 영역에 그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

{요}는 통시적으로 15세기 의문종결어미 {-오}에서 발달한 것으로 17세기에 이르러 {-고}의 ‘ㄱ’묵음화 의식이 불식되면서 순행동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 시기에 {-오}계열이 호소체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도 호소체의 높임형태와 호라체에 같이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것이 18세기에 이르러 호소체 형태로 자리잡아 나아가다가 19세기에서야 호소체에 활발히 쓰이었고, 20세기 전기에 사회제도와 더불어 신분제도의 붕괴 등 사회 언어학적 요인에 의해 반말이 생산성을 가지게 되자 이에 결합된 {요}도 모든 반말을 두루높이는 형태소로 정착하였다. 그리고 현금 그 세력을 더욱 넓혀 다른 문장성분과도 결합함으로써 보조사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요}의 이형태로는 충청도 지방의 {유}와 경상도 지방의 {예}가 보인다.

참고 문헌

- 강복수(1979), 〈국어문법사연구〉, 형설출판사
 강복수·유창균(1968), 〈문법〉, 형설출판사
 강운호(1968), 〈정수문법〉, 지림출판사
 고영근(1974),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어학연구 10권 2호〉
 고영근·남기심·박경조(1985), 〈고등학교문법〉, 탑출판사
 김민수·이기문(1968), 〈표준문법〉, 어문각
 김승곤(1986), 〈한국어조사의 통시적 연구〉, 대제각
 김정시(1983), 〈맺음씨끝의 사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김종명(1985), ‘19세기 국어의 격연구’〈한국어학 19호〉, 홍문각,
 남기심·고영근(1986), 〈표준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마쓰오 이사무(1977), '한국어 경어와 장면' <우리말연구 1977:2>, 홍문각
- 박승빈(1931), <조선어학 강의요지>
- (1935), <조선어학>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성기철(1970), '국어 대우법연구' 충북대학교 논문집 제4집
- 신창순(1963), '상대존대어고' <문경 15>, 중앙대 문리대
- 양주동·유복상(1968), <새문법>, 대동문화사
- 오종갑(1988), <국어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윤재원(1988), <국어보조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경영(1992), '17세기 국어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제108호>, 홍문각
- 이길록(1981), <국어 문법연구>, 일신사
- 이명권·이길록(1968), <문법>, 삼화출판사
- 이상일(1960), '15세기 국어의 활용어미 연구' <국어연구 9호>, 홍문각
- 이승녕(1968), <문법>, 을유문화사
- 이은정(1968), <우리 문법>, 문천사
- 이을환(1968), <최신 문법>, 양문사
- 이익섭(1974), '국어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 (1984),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인섭(1972), '경어연구(1)' 서울여자대학교 <인문사회과학>
- 이재춘(1991), '19세기 충북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한국어학 29호>
- 이현규(1977), 국어 물음법의 변천 <한글 162호>
- 이희승(1968), <새문법>, 일조각
- 정인승(1968), <표준 문법>, 계몽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 출판부
- 허웅(1968), <표준문법>, 신구문화사
- (1975), <우리옛말본>, 1981 중판, 샘문화사
- 홍기문(1947), <조선문법연구>, 서울신문사